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0월 15일 (제122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서로 하나 되자!

이제 우리는 서울교회 성전이 확정될 때까지 상황에 따라 인천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나는 이 과정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교회와 인천교회는 같은 예수중심교회이다. 그런데 장로들이나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별로 섞이지 않아서인 듯하다. 집회 때 외에는 달리 함께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닮은 듯 서로 다른 꼴이다. 사실 형제도 떨어져 지내면 별로 정이 없다. 낯설다. 매일 치대고 부대껴야 정이 든다. 서울교회와 인천교회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서로가 낯설어서 빚어지는 일이다.

이번이 기회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우리가 가족임을 피부로 느껴보자. 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낯설었던 부분을 해소해보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자.

형제가 우애하는 것 이상 부모는 바라는 게 없다. 형제가 서로 쟁기고 아끼는 것 이상의 효도도 없다. 서울교회와 인천교회가 하나 되어 화목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더 바랄 것이 없다. 힘든 일도 기쁨으로 헤쳐나갈 힘이 솟는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해하실까.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로,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다. 아마도 매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각지에서 모인 형제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며 불렀던 노래로 추정된다. 그 첫 절의 말씀은 이것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서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애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속히, 좋은 곳으로 서울 성전을 준비하시리라.

서울교회와 인천교회는 운명공동체요, 신앙공동체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단단히 결속하여 하나가 되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 할렐루야!

집회 준비 초기에 목사님은 문 선교사에게 현지 목회자들을 규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성공적인 집회들을 보면 집회 주관자가 현지 목회자들의 연합을 잘 이루어낸 경우였다. 그래서 문 선교사는 현지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 모아 음식을 대접하며 집회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렇게 순조롭던 준비에 잡음이 나기 시작한 것은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이단의 집회에 협조하면 안 된다고 들추시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더러는 떨어져 나가고 우왕좌왕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우리가 도착하여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녹록지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뿌갈빠(Pucallpa) 도착 첫날 현지 목회자

사건을 말씀하시며 용서하고, 품고,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세미나에는 당연히 그 여목사도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회를 모두 마치고 뿌갈빠를 떠나기에 앞서 숙소로 목사님을 찾아왔다. 이번 집회에 받은 은혜와 목사님께 감사를 표하며 기도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이 있다.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점검하고, 돌아보아 작은 불씨라도 사전에 제거하는 치밀함이 필요한 것이다.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열 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

로 목사님 유튜브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사모해왔단다. 12년간 목회하면서 40명 성도였던 교회가 그 집회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300명 성도로 성장했다고 한다. 그는 직접 헌물을 들고 찾아와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경청했다.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각자 달란트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용서해라. 맞지 않는다고 내치니 교회가, 목회가 망하는 거다. 목회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 이 한 말씀만 듣고 가도 너는 성공한다. 네가 집회를 준



탄상 밑으로 용신할 틈 없이 몰려든 성도들(페루 뿌갈빠 집회)

들과의 미팅에 나가기에 앞서 한 여목사가 숙소로 찾아와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다. 시간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었으나 목사님은 꼭 만나줄 테니 다시 찾아오라고 약속하셨다. 문 선교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목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나서 목회자 모임에서 배척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월에도 서릿발이 내린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집회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다. 절대 내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튿날 목회자 세미나에서 예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리기 때문이다.

집회 첫날 저녁,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라파엘(Rafael) 목사(43세)가 차로 11시간을 달려 찾아왔다. 이튿날 아침에 목사님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나훔(Nahum) 목사의 마라나타(Maranatha) 교단 소속 목사이며, 지난 2015년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라(Alajuela)집회 때 목사님을 처음 보았다고 한다. 2004년의 시카고 목회자 세미나를 나훔 목사는 당시 교단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을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코스타리카 집회에 오셨을 때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이후

비한다면 목사들을 모아서 중책을 맡기고 너는 괜히 머리 되려 하지 말고, 발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무엇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하는 거다. 다시 말한다. 연합전선을 구축하라.”

라파엘 목사는 목사님의 말씀을 모두 녹음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품에 안기곤 했다. 목사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니 뭔가 뽕 풀리는 느낌이라며 기뻐했다. 이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코스타리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 아닌가.

(4면에 계속)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코스타리카 라파엘 목사



성령이 임하여 방언통역을 하고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4:1~8)

신앙생활은 그날의 상을 보고 뛰는 것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각 종목에서 메달을 딴 자들을 보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되면 너무 기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선 것에 불과합니다.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태릉선수촌에 입촌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진짜 고된 훈련이 시작됩니다.

후회 말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일 하자

예수를 믿어 신자(信者)가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국가대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경사 중의 경사지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올림픽을 위해 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聖徒), 곧 성스러운 성(聖), 무리, 견을 도(徒)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마라토너에 비교했습니다. 도상 위의 주자(走者)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고 격려합니다.

이왕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이왕이면 메달을 목에 걸라는 뜻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대단합니다. 목에 거는 메달은 사실 명예요 훈장 같은 것이고,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각 기업에서 포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국가에서는 평생 메달 색깔에 따른 연금 혜택을 줍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지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신앙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보세요. 엄청납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사도 바울은 죽기 살기로 훈련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

요즘은 메달을 목에 걸어주지만, 고대 올림픽에서는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주님이 직접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포상과 함께 말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저는 흥분되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녀온 것입니다. 저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말씀을 믿고, 그 상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4)며 확실한 목표를 둔 사도 바울 같아야 합니다. ‘뭐 꼭 메달을 따야 하나?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메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자가 최선을 다할 리 없으니까요. 성경은 말 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고전9:26).

그래서 저는 그날에 받을 상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가르칠 뿐, 주의 일을 하는데 절대 사정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은 하지만, ‘봉사해달라’ 사정하지 않습니다. 메달에 목표를 두면 각자 알아서 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힘이 세다고, 기술이 좋다고 메달을 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딤후2: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훈련을 날려도 규정을 위반하면 실격입니다. 신앙생활도 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 신념에 가득 차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법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백 세에 난 아들을 제물로 내놓으라는 하나님 명령에 ‘아멘’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왜 빼앗아 가냐?’고 따지는 것은 ‘왜 마라톤 코스대로 달려야 하나? 빠른 길이 있어 그리로 가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자신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 다투하는 자마다 자기 몸을 다 멸하여서 자기 몸을 보존하리라”(고전9:25). 히브리서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히12:1)라고 했습니다.

국가 대표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자고 싶은 거 다하는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조선수들의 식단을 보면 ‘저걸 먹고 어찌 버티나?’싶을 정도로 소식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는 것, 입는 것, 외출까지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성도들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람직한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3:7~9)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좁은 길입니다. 다 좁어지고,

다 가지고는 걸려서 좁은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선수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기록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인내하며 참아내야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 그 무거운 역기를 인내하며 올려야 하고, 수영선수는 새벽에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마라토너는 2, 3시간이 넘도록 인내하며 뛰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국가대표 옷을 벗어야지요. 코치는 사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만사형통하리라 생각하겠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인내할 때 난사형통(難事亨通)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 편하기만 했나요? 야곱이나 요셉, 바울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나요? 다 난코스를 만났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 완주했습니다. 예수님도 치욕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히12:2)? 저 역시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를 걸었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나 힘이 다하고 거의 포기하고 싶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40:30~31)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넉넉히 고되고 힘든 것을 이겨낼 것이고, 마침내 메달을 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메달을 따서 받는 연금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보상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9:25). 그런데 그것을 위해 잠시 동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을 못합니까? 국가대표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받을 상과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메달을 따시다. 이왕이면 그날에 주님이 들고 계신 상과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봅시다

사람은 눈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생각을 통하여 분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속성을 보면, 상대방의 장점은 찾기를 싫어하고 단점만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신이 비난하던 일들을 자신도 따라 하게 되는데 상대방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교만이란 큰소리치고 거들먹거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숨어있는 무서운 교만입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 3:10)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판단하고도 자신이 동일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니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무리 시원찮게 보여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점을 보는 눈은 달아버리고 장점만 찾아서 본다면 나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잘못된 점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허구한 날 상대방을 비난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말꾼보다는 일꾼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잠18:12)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단점만 바라보면 내 마음이 높아지고, 상대방의 장점만 바라보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인데, 모든 물이 바닷가로 모여드는 것은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보이면 ‘나 자신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장점만 바라보고 배워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문제 속에는 원인이 있다

수련회를 3주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신호 대기 중이던 제 차를 보지 못한 뒤차가 들이받았고 제 차도 밀려서 앞차를 받게 된 삼중추돌사고였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진 충격은 목과 허리에 통증을 유발했고, 치료 후 수련회까지 마쳤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통사고는 왜 났으며 왜 이리 아픈 건가요? 정신까지 피폐해지니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께 신세 한탄하며 하염없이 울던 첫날 밤, 불현듯 5년 전 일어난 교통사고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만을 쫓아가던 2018년 10월 말, 무언가에 홀린 듯 앞차를 들이받았던 저는 전신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감사하게도 그때의 사고가 나를 살리시려는 ‘주님의 신호’라는 깨달음을 주셨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주세요.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찌면 그때 주셨던 신호와 같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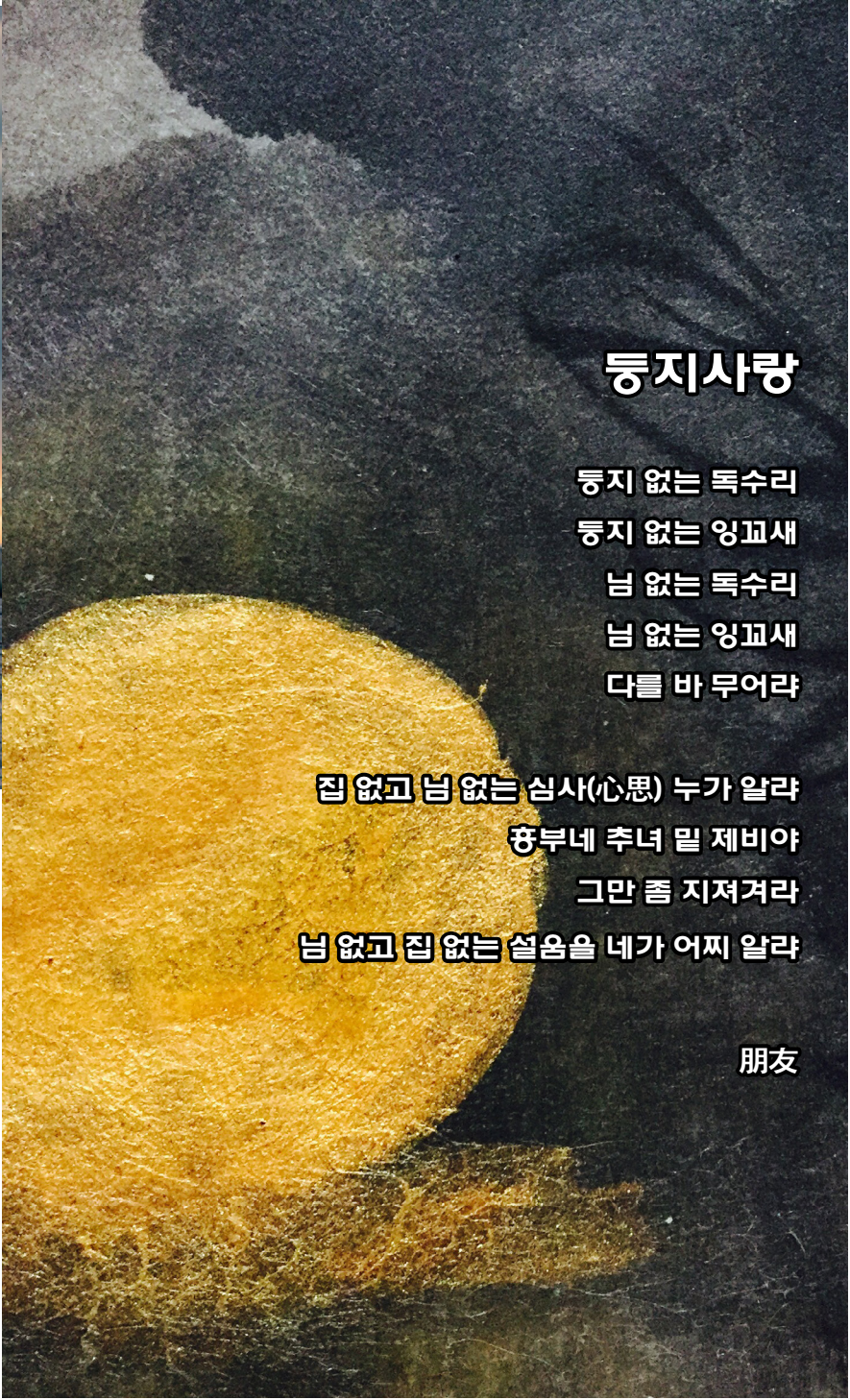
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너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것이 아닌, 내 힘과 능으로 해보려고 전전긍긍, 아등바등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의 독을 채우지 못한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환경과 상대를 탓하던 나의 어리석음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고,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긴 회개 끝에 선물로 주신 시편 116편의 말씀은 ‘평생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리라’ 저를 결단시키셨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아 암울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가 인생의 답’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판에 새깁시다. 현실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해결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116:1~2).

김진실 사모



등지사랑

등지 없는 독수리
등지 없는 잉꼬새
님 없는 독수리
님 없는 잉꼬새
다들 바 무어라

집 없고 님 없는 심사(心思) 누가 알라
흥부네 추녀 밑 제비야
그만 좀 지저거라
님 없고 집 없는 설움을 네가 어찌 알라

朋友

:: 생명의 말씀 ::

입술이 사람을 바꾼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고 하듯, 어떤 말은 상대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말은 분노와 오해와 절망을 주기도 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사소한 일일지라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량물이 모여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 그 힘은 일찍이 꿈꾸지도 못했던 거대한 제방을 허물어뜨린다.

귀하게 자라서 부엌일을 거의 안 해본 여자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반찬은 그런대로 먹을 만했는데, 문제는 밥이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었느냐?”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올리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용서해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 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지람을 각오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이 사소한 말 한마디

가 며느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남아서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한 효도를 했다고 한다. ‘그동안 천정에서 뭘 배웠냐’, ‘대학은 폼으로 나왔냐...’ 등등으로 상처를 줄 법도 한데, 오히려 무안해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신 시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렇듯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기도 하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 또한 내가 존경받고 인정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든지, 반대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다(갈 6:7). 입 관리 잘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다.

말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지고, 상처받고 원수가 되어 버린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1분이면 족하다. 부디 상대에게, 또한 자신에게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자.

임택함 목사

::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 ::

:: 글쓴의 주님 ::

30년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뿌갈빠(Pucallpa) 집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수도 리마(Lima)로 떠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숙소로 찾아와 목사님 뵙기를 청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으로 나가기 전에 이번 집회로 인해 거의 녹초가 되신 목사님께서 조금이라도 쉬셨다 가시길 바랬으나 목사님 말씀처럼, 좋은 의지가 없는 건가 보다. 한 마디로 호텔 로비에 줄을 지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 상담을 마친 목사님은 그녀의 간증을 들으니 모든 피곤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셨다.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주셨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 문초록 선교사에게 그녀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했다.

저는 36년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이라 마르가리따(Saira Margarita, 66세)입니다. 오랫동안 간호사 일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육체적

인 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만 영적인 병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을 봐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적 치유를 받고 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53세일 때 하나님께서 저의 유방암과 자궁암을 치유해주셨고, 최근에는 무릎뼈 골절도 치유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치유해주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호사 일을 이번 연도로 마무리 짓고 길거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모터카에 스피커를 설치해 길거리 곳곳에서 세상 음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이 흐르게 하려 합니다. 길거리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찬양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이들을 보면서 먼저는 믿는 자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과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서 큰 부흥집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열렸던 축구경기장은 사실 재건축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많은 술 취한 자들

과 마약하는 자들이 지내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도청에서 새로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축구경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오랜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초석 목사님을 통해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형집회는 뿌갈빠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뿌갈빠의 영혼들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으니 앞으로 뿌갈빠에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큰 집회를 준비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리며, 이초석 목사님과 모든 교회 형제지매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30년을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진실로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이유를 또 발견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목사님은 마르가리따 간호사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시며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기도해주셨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길을 계속 가는 것 아닌가.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그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말이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돌리며,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다이돌핀

엔돌핀은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통증 완화효과를 가진 물질의 총칭이다. 마약성 진통제보다 48배의 진통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엔돌핀이다. 15초 동안 소리 내어 크게 웃으면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이 나오고 자연 수명도 이를 연장된다고 한다. 웃음보다 감사하면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이 배출되어 암 세포까지 죽인다고 한다. 그렇다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될까? 바로 감동 받을 때,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황홀한 사랑에 빠졌을 때,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강력한 작용을 일으켜 암을 공격한다. 대단한 효과다. 우리는 감동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 세상에는 불평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사가 즐겁고 행복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어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 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감사하셨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눅 10:21). 진정한 감사는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었다. 한마디를 듣고 열 마디를 깨닫는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예수님처럼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7).

이승효 목사

서울교회 예배 안내

88체육관 사정으로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교육관과 각 기도처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4부예배는 인천 서울간 교통정체를 고려하여 오후 2시로 변경합니다.

:: 일본에서 온 편지 ::

기도란 재료로 만드는 맛난 별미 인생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있듯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기도도 호흡처럼 쉽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는 내뿜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마시듯이 순간순간 죄는 자백하여 내버리고 성령의 은혜는 받아가며 살아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하지만, 응답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죽어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우리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키는 힘이 있으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비밀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을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 처

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일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덕목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딘가 여행을 가면 경치 구경과 함께 별미를 먹는 재미를 뽐낼 수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찾아볼 수 있는 향토 음식들은 지방특산품이나 특유의 조리법 등을 이용하여 만든 그 지역의 전통 음식입니다. 흔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별미를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재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며 그 기도의 재료들로 기도하여 멋지고 맛난 인생, 별미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십시오.

서동경 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